

● 특집

# 수입,

# 왜 늘어나고 있는가?

80년대 후반의 과소비 및 내수 위주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재연되지는 않을까? 최근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무역적자도 더불어 확대되고 있다. 수입은 왜 늘어나고 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향후 전망해 본다.

■ 글/최윤기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동향분석실

**최** 근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금년 들어 국내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의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수입 증가로 인해 금년 수출의 빠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8월에는 수입 증가율이 30.1%로 수출 증가율 16.8%를 훨씬 상회하여 무역적자(통관기준)가 9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근의 수입증가는 자본재 수입과 소비재 수입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내수용 수입의 증가가 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내수용 수입 특히 소비재 수입은 앞으로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80년대 후반의 과소비 현상과 내수위주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다시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수입



증가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 설비투자 증가로 자본재 수입 증가

금년 들어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회복되면서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설비투자는 재작년 하반기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자본재 수입도 재작년 2.1% 증가에 그쳤으며 작년에는 0.1%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반전된 후 금년 들어서는 중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과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마인드가 호전되어 상

반기 중 실질기준으로 17.7%나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 금년 1~7월까지 일반기계 수입이 전년 동기비 25.8% 증가하는 등 자본재 수입이 22.3%나 증가하여 총 수입 증가율 14.8%를 훨씬 상회하였다.

### 소비재 수입도 크게 늘어

자본재 수입과 함께 소비재 수입도 금년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소비재 수입은 금년 1~7월까지 전년 동기비 20.5%, 양곡을 제외한 일반 소비재는 22.8%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민간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입품이 고급

화,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소비지출은 지난해 경기부진과 정부의 강력한 사정활동, 금융실명제 실시 등에 따라 위축된 소비심리가 금년 들어 경기회복과 사정 분위기 퇴조로 되살아나면서 금년 1/4분기 실질 기준으로 6.8% 증가한 데 이어 2/4분기에는 7.6%로 증가세가 더욱 빨라졌다. 특히, 내구소비재 수입의 증가세는 더욱 빨라져 1/4분기에 9.6% 증가한 데 이어 2/4분기에는 12.1%나 증가하였다.

### 고급 내구소비재 수입 증가세 두드러져

소비재 수입 가운데에서도 특히 고급 내구소비재 수입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고소득층의 소비가 사정활동 약화와 금융실명제 정착에 따라 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고급 차종이 주종인 승용차 수입의 경우 사정활동이 활발하였던 지난해에는 17.7% 감소하였다. 그러나, 금년 4월 이후에는 승용차 수입이 전년 동월비 100%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는 235.7%나 증가하였다. 또한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전체 가전제품의 수입이 11.7%의 비교적 낮은 증가에 머물렀으나 냉장고, VTR 등 고급 가전제품의 수입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수입이 감소 또는 소폭 증가에 그쳤던 VTR,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수입은 금년 1~7월에는 각각 전년 동기비 74.8%, 113.3%, 41.5%, 165.6%나 증가

### 주요 소비재 수입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1993	1994. 1~7월
소 비 재 전 체	5.5	22.8
가 전 용 전 자 제 품	10.2	11.7
V T R	22.3	74.8
냉 장 고	1.5	113.3
세 탁 기	-2.6	41.5
에 어 컨	-15.8	165.6
컬 러 T V	17.6	36.4
라 디 오 카 세 트	6.0	52.5
승 용 차	-17.7	72.5
의 류	33.4	77.7
신 발	35.1	41.7

주: 1) 양곡 제외

하였다. 지난해 17.6%, 6% 증가한 컬러 TV와 라디오 카세트는 금년 1~7월 중 각각 전년 동기비 36.4%, 52.5% 증가하였다.

### 경공업 소비재 제품 수입에서도 고급화 추세 뚜렷

한편, 고급 내구소비재뿐만 아니라 의류, 신발 등 경공업제품의 수입도 크게 늘고 있다.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의 수입은 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경공업 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수입이 크게 증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공업 제품의 수입 패턴에 있어서도 고급품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먼저, 신발 수입의 경우 저가품이 위주인 중국과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년 1~7월에는 전년 동기비 125%, 243.9% 증가하여 지난해의 각각 230.5%, 224.1% 증가에 비해 증가율이 비슷하거나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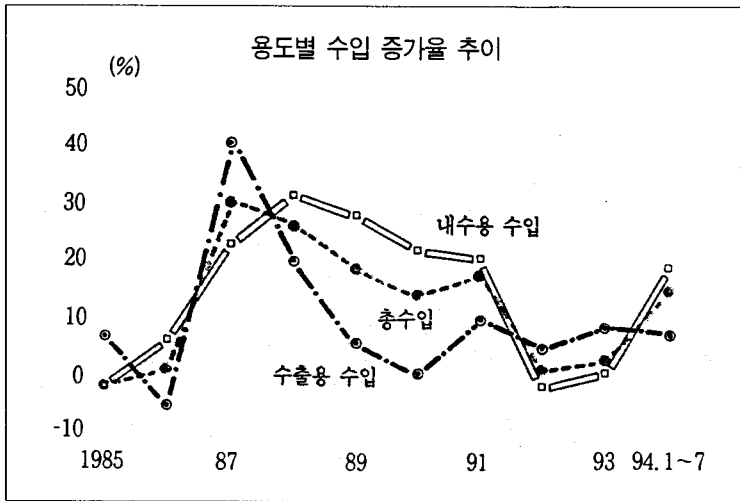
반면, 고가품이 위주인 EU로부터

의 수입은 지난해 22% 감소하였으나 금년 1~7월에는 146.1%나 늘어났다. 의류제품의 수입 역시 지난해 31.9% 증가한 EU로부터의 수입이 금년 1~7월에는 86%나 증가하여 고급 의류제품의 수입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 향후 소비재 수입 증가세 계속될 듯

최근의 수입급증 추세는 금년말 이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품목별로는 자본재 수입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비재 수입의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재 수입은 기업 설비투자가 그 동안의 투자급증으로 지난 경기부진기의 투자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경공업 부문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소비재 수입은 앞으로 민간소비지출의 증가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사정 활동에 따라 움츠러들었던 고소득층의 소비심리가 크게 높아지면서 80년대 후반의 과소비 현상으

로 연결될 경우에는 소비재 수입 증가세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재 수입 증가는 자본재 산업이 취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설비투자 확대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재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개선

되기 힘든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소비재 수입 증대는 80년대 말 과소비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보다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8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과소비 현상과 내수 위주의 성장세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취약해졌으며,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90년대 초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이어진 바 있다. 최근의 수입을 내수용 수입과 수출용 수입으로 나누어 보면 수출용 수입이 급년 1~7월 중 전년동기비 6.7% 증가에 그친 반면 내수용 수입은 188%나 크게 증가하여 80년대 말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소비재 수입이 고급,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과소비 현상의 한 징후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를 높여주고 있다.

## 입사하고 싶은 기업

### 입사선호도 삼성 7년째 1위 국제화 등 8개부문 석권 리크루트誌 조사

삼성그룹이 7년째 입사인기 및 이미지 1위 자리를 지켰다. 리크루트사가 지난 10월 한국채용박람회 및 지방취업종합설명회 등에서 실시한 '제14회 대학생 기업이미지 및 입사선호도 조사' 결과 총 유효응답자 1만2천8명 중 30.6%가 삼성을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그룹으로 뽑았다.

2위는 현대(7.4%)였으며 이랜드·럭키금성-한국이동통신-한국전력공사-한국통신-롯데-선경-쌍용그룹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부문별 이미지 순위

#### 연도별 10대 인기기업

연도	1위	2위	3위	4위	5위
88년	삼성	성현	한통	럭선	금경
89년	삼성	성현	한통	럭선	금경
90년	삼성	성현	한통	럭선	금경
91년	삼성	성현	한통	럭선	금경
92년	삼성	성현	한통	럭선	금경
93년	삼성	성현	한통	럭선	금경
94년	삼성	성현	한통	럭선	금경

부문	순위	1	2	3	4	5
국 제 화	상	성	현	대	대	우
최 고 기 업	상	성	현	대	대	우
성 장 장 성	이	랜	드	이	동	통
인 재 중 시	상	성	현	대	대	우
첨 단 기 술	상	성	현	대	대	우
근 개 중 시	상	성	현	대	대	우
무 조 건	상	성	현	대	대	우
우 수 한	상	성	현	대	대	우
국 가 정 체	기	여	현	대	대	우
우 수 한	최	고	경	영	자	상